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미 린다 수녀입니다.  
 신자이셨던 할아버지, 찾아볼 때마다 나누었던 소 소하고 귀한 일상. 그리고 할아버지의 임종을 통한 하느님의 부르심이 계기가 되어, 1991년 2월 17일 26명이나 되는 많은 동기들과 함께  
 임회하였습니다.

종신서원은 2000년 1월에 하였고, 10여년의 본당사도직과 피정집을 거쳐 오랜 기간 학교사도직을 통해 하느님의 섭리를 따라 응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우선적 선택에 대해 가졌던 원의가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만남을 통해 체험할 수 있었는데, 특수학급의 학생들의 순수하고 단순한 삶의 태도. 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외되는 장애 학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도움의 손길과 하느님 사랑을 필요로 하는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천 새터민 공동체로 옮겨 또 다른 가난함을 안고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과 그분들의 자녀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수도회 민족화해 위원으로 있으면서 함께 하고자 했던 이들과 이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이들을 통해 느끼고 감사하면서, 힘겹지만 희망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과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평화를 위해 매일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Hello! I'm Sister Mi Jeong, Linda. My grandfather was a Roman Catholic, and he was a significant influencer on my faith. His death was a call to my religious vocation, and I entered our community with twenty-six other women on February 17, 1991. I had perpetual vows in January of 2000. Since then, in response to God's call, I was involved in parish and retreat ministry for ten years and school ministry. God realized my intention to pay attention to the needs of those in poverty and preferential choice by meeting students in need of help in special classes at school. I came to see how much they need hands of support and the love of God in their pure and straightforward attitude toward life, their needing others' help, and so-called maladjusted students isolated from peers due to their weakness.



Today I am working at the Incheon North Korean Defector's Refugee Center, with refugees and their children. As a member of the Korean Province Committee on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 am working with those I wish to serve. Working with and for them, I experience the

providence of God and am grateful. I am also praying for all the North Korean refugees dreaming of new futures while living daily struggles yet live each day with hope. I pray dail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